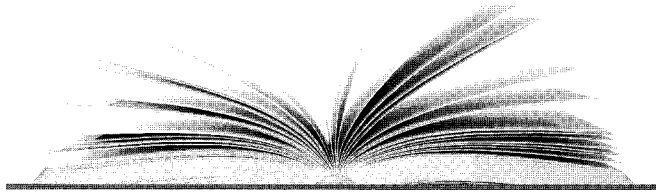


은혼식(銀婚式 : 결혼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베풀었던 일은 아내와 단 둘이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일이었다.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아내는 가이드 없이 단 둘이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가자고 했고, 필자 또한 아내와 단둘이 가는 여행의 호젓함을 누리고 싶었다. 아내는 필자와 함께 일본의 큐슈지방을 3박 4일간 다녀보기 위해서 연일 인터넷의 여행정보와 씨름을 하면서 여행계획을 수립했다.

## 일본 배낭 여행과 닭꼬치 요리



“유후인은 연인들이 많이 가는 휴양지라고 하는데, 우리도 가 봐야겠지?”

“사람들이 많고 복잡한 곳보다는 조용하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좋겠지!”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단체 여행은 목적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만, 이번 여행은 우리 마음대로 목적지를 계획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나가사키는 원자 폭탄이 떨어졌던 곳이니까 피폭지점도 보고, 평화 공원도 봐야지!”

“나가사키엔 외국인 거류지역이 있다는데 거기도 가 봐야겠고!”

“구마모토에 가면 말고기를 먹어 봐야 하나? 구마모토 성도 보고!”

“박물관은 꼭 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큐슈국립박물관 하고 다자이후 마을도 가 봐야지!”

아내의 여행계획은 한동안 계속 되었고 필자가 회사에서 퇴근하면 일본 방문 예정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었다.

“우선 후쿠오카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지하철로 하카타역으로 이동하고!”

“호텔 더비 하카타에서 계속 묵을 거고, JR PASS로 계속 기차 여행을 할 거야!”

아내의 치밀한 여행계획 덕분에 필자는 편하게 여행을 즐기지만 하면 되었다. 결혼기념일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인천공항을 향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리무진 버스에는 승객이 많았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오른



최 충 집 상무이사  
(주)마니커 사육본부

후쿠오카행 비행기에는 일본으로 가는 우리나라 단체 관광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다.

짧은 비행시간 이후 우리는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고, 바로 지하철을 이용 하카타역으로 이동했다. 하카타역에 도착한 우리는 JR PASS 예약권으로 JR PASS를 교환하고 일정에 따른 열차표를 사전 예약했다. 하카타역에서 우리가 묵을 호텔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호텔에 짐을 푼 우리는 다시 하카타 역에서 유후인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우리의 첫 여행지로 향했다. 기차는 노란색의 열차로 관광을 위해 제작된 듯 주변 경치를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우리 부부의 좌석은 첫 번째 차량의 앞쪽에 있어 마치 우리 부부만을 위한 전세 기차 같았다.

“경치가 잘 보이네!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인가봐.”

우리가 탄 뒤쪽 좌석에는 부부로 보이는 몇 커플만이 타고 있었다.

“단체 관광으로 오지 않길 참 잘 한 것 같아. 시간의 여유도 있고!”

“에키벤! 에키벤!”

점심 때가 되어 출출하던 우리 부부는 에키벤(기차에서 파는 도시락)을 사서 먹었다. 일본 열차 여행의 묘미는 열차에서 사먹는 도시락에 있다면서 아내는 재미있어 했다.

유후인에 도착한 우리는 한적함을 누리며 주변을 관광했다. 역시 유후인은 연인들에게 어울리는 휴양지라는 말에 걸맞게 커플들이 많이 보였다.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만 다니

는 여행이 아니라 유유자적,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관광지였다.

기린코 호수에 석양이 아름답게 지기 시작할 무렵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카타행 열차에 올랐다.

하카타역은 저녁 퇴근 시간이라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하카타역을 빠져 나와 호텔로 가는 길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었다. 그중 유난히 사람이 많이 들어차 있는 음식점 간판을 보니 “야끼도리(닭꼬치 구이)”와 “사케(일본 정종)”를 파는 음식점. 닭꼬치를 굽는 냄새에 이끌려 우리는 음식점에 들어갔다.

음식점은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 야끼도리 무척 좋아하나봐!”

“야끼도리 종류도 엄청 다양하네!”

“일본에서 꼭 먹어봐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일 저녁에 다시 와야겠어!”

“아까 기차에서 저녁 도시락도 먹었고 내일 다시 와 보자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식당을 나와 다음날 꼭 와볼 것을 기약하며 우리는 호텔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는 원폭 피폭지였던 나가사키행 기차로 여행을 시작했다. 나가사키에 도착한 우리는 제일 먼저 원폭 피폭지점을 찾았다. 그곳에는 엄청 많은 일본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

“글쎄 한번 물어 볼게.”

아내가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는 교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는 말했다.

“특별한 날은 아니고 수학여행 왔다고 하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교 학생들이 오나?”

그곳에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여러 그룹의 학생들이 교사의 인솔하에 목념도 올리고 의견도 발표하고 있었다. 마치 성지순례를 다니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근처에 있는 평화공원과 박물관에서도 단체로 온 학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인솔교사를 따라 다니는 학생들을 보며 일본 역사 왜곡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하카타역에 도착한 우리는 어제 사람이 많아 포기했던 야끼도리 음식점으로 갔다.

“어머나? 오늘은 어제 보다 사람이 더 많은데!”

음식점의 안팎에는 어제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도저히 들어 가볼 엄두가 나질 않았다.

“이런! 오늘 꼭 닭꼬치 구이를 먹어 보려 했는데... 모든 가게가 사람들로 꽉 차 있으니...”

“아직 일정도 남았으니 내일 다시 와 보자고!”

“내일도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지?”

“설마 내일도 이렇게 많겠어? 배가 고프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기약하며 호텔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는 구마모토로 향했다.

구마모토 성은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다. 전차 박물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오래된 전차가 도시 가운데를 다니고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 타 보았던 전차를 추억하며 구마모토성으로 갔다.

구마모토성은 잘 가꾸어진 관광지란 생각이 들었다. 성외곽 주변으로 파여진 해자와 잘 가꾸어진 잔디밭 사이로 성곽이 우뚝 서 있는 그런 성이었다. 일본 대하소설 ‘대망’이나 사무라이 영화에서 보던 성과 유물들을 보며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성곽 뒤로 해가 아름다운 낙조를 펼칠 즈음 우리는 주변을 거닐었다. 해자 주변은 사람이 별로 없어 호젓한 분위기였다. 아름다운 낙조를 보며 아내와 단둘이 여행하길 정말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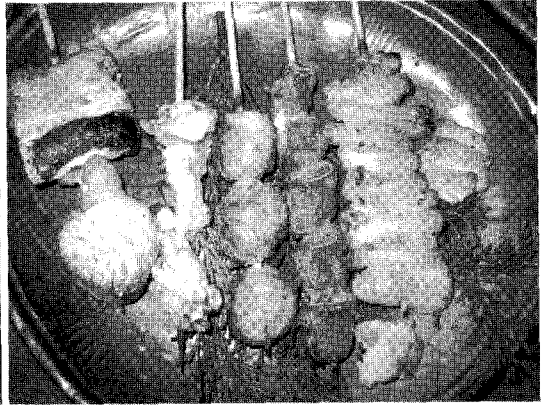
구마모토에서 하카타역으로 돌아오던 길에 우리는 이틀간 미뤄왔던 야끼도리(닭꼬치) 음식점으로 향했다.

“역시나 사람이 많네 그려.”

“오늘 아님 이제 올 기회가 없는데, 사람이 많더라도 들어가서 먹어봐야지!”

우리는 야끼도리(닭꼬치) 음식점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야끼도리는 참으로 다양한 메뉴가 있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소스가 발라진 닭꼬치 구이를 음미하며 사케 한잔으로 건배를 했다.

“닭꼬치 구이 한번 먹기 어렵네! 뭘 사람이 이리도 많담.”

“글쎄, 일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나봐. 야끼도리(닭꼬치).”

옆에 있는 일본 사람(양복 차림의 셀러리맨)들과 우리는 담소를 나누며 일본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부부 커플로 배낭여행을 왔다는 이야기에 상당히 부러워들 했다. 자기들도 나중에 그렇게 해보아겠다고면서, 특히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은 우리 부부가 손을 잡고 음식점에 들어왔다는 점이였다(관심있게 쳐다 본 듯 했다). 일본 사람은 잉꼬 부부라도 손을 잡고 다니기는 어렵다고 했다(우리는 여행내내 같이 손잡고 다녔는데).

다음날 아침 우리의 마지막 일정인 후쿠오카 국립 박물관, 다자이후 텐망구(학문의 신을 모시는 신사)를 관광하러 갔다. 후쿠오카 국립박물관에서의 기억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만들어졌다는 점이었고, 다자이후 텐망구에서의 기억은 일본 사람들의 일생이 신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 점이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 결혼, 장례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람들의 생활에 신사는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귀국길에서 아내와 이번 여행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도 단둘이 이런 여행을 했으면 해!”

“이렇게 오니 여유롭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관광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데? 그래, 앞으로 자주는 못 다니더라도 2~3년에 한번은 같이 여행을 가자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은 닭꼬치 구이(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가기 힘들었던) 음식점과 사케를 기울이며 나눴던 일본 사람들과의 대화, 기차여행의 묘미인 다양한 에키벤,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여유로움과 한적함 등 이번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과 우리 부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